

러시아 영화산업의 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조사

KOFIC

러시아 영화산업의 폭력 및 성폭력에 관한 조사

영화진흥위원회 러시아 통신원 송준일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7 년 02 월 08 일

-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 층, 14 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2017

Contents

01

들어가는 글 / 1

02

소비에트의 스튜디오, 감독은 지배계급

배우, 촬영 스태프는 소비에트의 노동자 / 2

03

언어폭력 / 2

04

성폭력과 여성인권 및 아동 배우와의 계약 / 2

05

나오는 말 / 5

1. 들어가는 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계약서 상 등록된 영화 촬영 현장에 참여한 인원수는 45,280명이다. 15년 동안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배우 및 촬영 스태프에 대한 폭력 및 가혹행위는 0건이다. 아니, 러시아 영화 전체 역사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이다. 일화로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과 함께 몽타주 이론의 창시자인 레프 쿨레쇼프가 "법에 따라, 1926" 촬영 당시 자신의 아내이자 영화의 여주인공 알렉산드라 호홀로바의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4시간 동안 눈 위에서 뒹굴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정부측에 보고 되었고, 쿨레쇼프는 경고장을 받았다.

0건이라는 수치를 보고 혹자는 아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성공 때문에, 어떤 이는 일자리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 또 어떤 이는 자신만의 이유 때문에, 암묵적으로 지나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4만 5천이라는 수 중 절반 이상이 배우인 반면 주연이나 조연으로 출연하는 배우는 매우 한정적이기, 또한 고정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이 폭력이나 성폭력이 일어나도 대부분 참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 답변자들은 위에 열거된 이유들을 부정하고, 인권과 야망을 철저히 구분하면서, 촬영현장에서 폭력과 성폭력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러시아 영화계는 어떤 장치를 통해 배우나 스태프들에 대한 폭력,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일까?

2. 소비에트의 스튜디오, 감독은 지배계급

배우, 촬영 스태프는 소비에트의 노동자

사실 어떤 장치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스튜디오와 배우 간, 스튜디오와 스태프 간의 계약서는 노동 시간, 휴식 시간에 관한 준수사항과 기본 근로수당 및 추가 근로수당 등에 관한 것으로 노동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촬영현장에서 구체적 장치가 없이도 폭력과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영화 산업 국유화를 발효한 1919년으로 돌아가야 한다. 레닌이 집권을 한 뒤 소련은 그야말로 노동자 세상이었다. 현재 러시아가 자본주의 노선을 많이 타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자의 세상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소비에트 시절 배우와 촬영 스태프는 피고용자에 속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피고용자에게 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하면 그들은 자신의 인권을 침해 당한 것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그것이 만약 고용주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고용주는 즉시 법정에 서야 한다. 다시 말해 소비에트 때 노동자들의 인권이 강화되었고, 동시에 당시 노동자 계급이었던 배우나 촬영스태프들의 인권도 강화되며, 현재까지의 통념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닌이 영화를 국가 산업으로 만들었던 것이 영화촬영현장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3. 언어폭력

언어폭력에 관한 방어막은 없다. 욕설이나 폭언으로 배우와 스태프에게 심리적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주 빈번하다. 대부분 언어폭력이 촬영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되기도 하고, 언어 폭력에 의한 피해자들 역시도 암묵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이의를 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가 "희생, 1986"의 마지막 화재 장면 촬영 당시 자동차 배치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미술감독에게 "병신"이라고 욕했던 것에 대해 누가 인권침해라고 할 것인가?

4. 성폭력과 여성인권 및 아동 배우와의 계약

성폭력에 관한 한 여성의 인권은 더욱 잘 지켜지고 있다. 여배우의 경우에도 계약서는 노동계약과 다름 없다. 박찬욱 감독이 "스토커, 2013" 촬영에 앞서 니콜 키드먼과 노출 수위와 터치 범위를 정한 것에 대해 나의 인터뷰에 응한 이들의 반응은 "미국식"이라며 비웃는 듯했다. 왜냐하면, "이미 캐스팅 이전에 배역과 시나리오에서 노출과 수위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그리고 좀 더 완성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연기 지도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닌 연출로 인해 여배우가 성적 수치심을 받을 정도라면 이미 촬영에 참여한 배우와 스태프에 의해 중지되는 것이 맞고, 혹시 그런 연출이 계속되어

여배우가 고통을 받는다면 이 또한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법정으로 가게 될 것이며, 그것도 아니라면 이 감독과 아무도 같이 일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 영화에 대한 정부규제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마치 러시아 감독들이 자신들의 욕정을 참고 있었다는 듯이 포르노그래피에 가까운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다. 화면에서 이 영화들은 집단 강간, 성적 학대, 페티쉬 등을 자주 보여준다. 장면들이 매우 충격적이었던 만큼 촬영 당시 여배우에 대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관련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이 중 가장 노출수위가 높거나 성행위가 가장 적나라했던 영화들의 주인공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¹를 찾게 되었다. 인터뷰에서는 영화에 참여하게 된 계기, 촬영 당시의 기억, 배우의 현재 근황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그 중 "카고-200, 2007"에서 낯선 남자에게 납치되어 성적학대를 받는 여주인공 역을 맡았던 아그니야 쿠즈네초바는

"낯선 남자 역할을 했던 알렉세이 폴루난이 유리병으로 나를 학대하는 장면을 찍을 때 그가 감정을 잡지 못해서 촬영이 오래 걸렸다. 그에게 이 배역은 심리적으로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나는 침대에 시체들을 던지는 것이 더 힘들었다. 물론, 신경이 곤두서서,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질렀다. 나한테 사람들이 그녀를 동정하냐고 묻곤 한다. 내 대답은 아니다.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엄마는 이런 영화인줄 알았으면 안 봤다고 했고, 아빠는 나한테 연기 잘한다고 했다. 어쨌든 이 영화는 여자들한테는 추천하지 않는다."

아그니야의 인터뷰와 다른 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성에 대해 벽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오히려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반감된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그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면 그 역할을 소화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 역할을 맡지도 않았을 것이다.



[카고-200, 2007. 유리병으로 여자주인공을 학대하는 알렉세이]

위 인터뷰 기사로 러시아의 모든 촬영 현장을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모스크바국립영화대

¹ <http://www.eg.ru/daily/cadr/47463/>

학의 한 교수의 말에 의하면 "서유럽에서는 여성의 노출 장면이나 성행위 장면이 있을 때 공간을 분리하는 가림막 같은 것을 사용하거나 의무화 하기도 하는데, 러시아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여성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여배우들은 노출 장면을 위해 이동할 때 노출한 상태에서 그냥 이동하기도 한다. 미국은 상업적인 면이 크고, 한국을 포함한 동양 국가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문화의 차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다.

아동 배우와의 계약

미성년 배우의 경우 계약서 상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추가된다. "14세 미만의 배우의 경우 부모 중 한 명, 혹은 보호자의 동의, 육체적, 정신적 손상 금지, 촬영 시간 제한, 휴식 보장 등"이다.²

² http://yuca.ru/stati?mode=view&post_id=2926401#_ftn2 촬영 현장에 참여하는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

5. 나오는 말

인터뷰를 시작했을 때 단호한 답변자들의 대답에 놀랐다. 첫 대답은 "폭력", "성폭력"은 있을 수 없고, 만약 있다면, 100% 법정에 간다는 것이다. 특히, 배우는 촬영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폭력, 성폭력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계약서에 등록된 사람만 4만 6천명인데 어떻게 단 한번도 없다고 말할까라고 자문하며 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들에게 반복할 때마다 답은 같았다. 더 긴 시간이 지나면 지나친 사건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러시아 영화계는 배우와 스태프 폭력과 성폭력에 관해서는 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여기는 듯 했다.

그러나 격변을 겪고 있는 러시아 사회에서 영화계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 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 특히, 성폭력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라고 느끼는 정도가 변할 수 있다. 국립영화대학의 한 심리학 교수는 "소비에트 시절 남녀평등의 일환으로 아동교육 때부터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시켜 가르치지 않는다. 자신의 성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래서 러시아인은 성장해서 이성에 대한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요즘은 아동 성폭력 사건도 들리고 있고, 여러 매체를 통해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에도 성에 대한 인식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고 답하며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에 교수의 말처럼 러시아에서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변화가 일어난다면 - 근본을 찾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 러시아 영화계에서도 이에 대비한 장치마련을 이제는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것은 상호간의 도덕적 대화가 아닌, 이성적 대화로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